

황사일록(黃蛇日錄)

서지정보

서명	황사일록(黃蛇日錄)
저자(성명/자/호)	미상(未詳)
판사항	筆寫
책크기	21×31
발행자	
발행년	
주제	임종장례일기
작성시기	18 세기 / 1749-12-10 ~ 1749-12-16
소장처	(원소장처) 아주신씨 오봉종택 /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해제

「황사일록(黃蛇日錄)」은 오봉(梧峯) 신지제(申之悌)의 후손인 신중인(申重仁, 1721~1749)이 29세의 나이로 일찍 사망하자, 그의 사촌동생이 신중인의 생전 행적 및 1749년 12월 10일 신중인이 죽기까지의 병세(病勢) 등을 기록한 것이다. 분량은 모두 64면인데 제1면과 제58면, 제64면은 공란이다. 제2면부터 제15면까지가 '일록'이고 제16면부터 만사(輓詞)등을 실었다. 1면에 15행, 1행에 28자 내외의 작은 행·초서 글씨로 필사한 것이다. '황사(黃蛇)'란 간지(干支)의 '기사(己巳)'를 말한다.

신중인은 소년시절에 절에 들어가 채식만 하면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로 몸이 병약해지는데다가 다리에 종기와 풍한(風寒) 등의 병이 겹치고 더욱이 부친상과 조부상을 당한 이후로 몸이 더욱 쇠약해져서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도 타고난 문학적 재능이 있어서 산수를 유람하며 시를 짓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다. 형제가 함께 낙선당(樂善堂)에서 밤늦도록 등불 심지를 돋우며 시를 짓기도 하고, 말을 타고 의성, 군위, 상주 등을 음영(吟詠) 유람하다가 중산촌(中山村)에서 2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 행적을 기록한 것이 이 「황사일록」이다.

이 일록을 작성한 '사촌동생'이 누구인지는 미상(未詳)이며, 신중인에 대하여도 모르는 점이

많다. 다만 의성오봉종택소장전적(義城梧峰宗宅所藏典籍) 가운데 완의(完議)가 있다. 문중의 여러 사람에게 이 완의를 나누어 주고 자손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한다는 신중인의 글이 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젊은 나이에 병약(病弱)하면서도 동중(洞中)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일기는 일기의 저자인 신중인보다 편집자인 그 사촌동생이 형을 사랑한 우애(友愛)에 대하여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부록으로 실린 문학적인 작품에 대하여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